

# 보험청구권 신탁 첫발... 과도한 규제에 시작부터 반쪽논란

사망보험 신탁 제도 미비 지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에  
수익자 범위도 가족 다양성 배제  
보험계약대출시 무효도 도마위



‘보험청구권신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청구권 신탁 한계 이미지.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

은 앞서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보험법 개정 후 생명보험사가 보험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을 돌파해 초기 반응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8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신탁시장으로 유입될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31조

7078억원 및 743조9230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보험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탁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불확실성이 높은 특약이나 보험금액이 적은 상품은 제외된다. 소규모 보험계약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자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만 국한되면서 사실상 동거가

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신탁계약 무효’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보험청구권이 대출로 인해 소멸하거나 감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 7개월 만에 반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2월 전국 매매 거래 32.3% ↑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최대치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활발했다.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늘었다. 특히 서울이 7320건으로 전월 대비 37.9% 늘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7월 1만3000건 안팎을 기록한 이후 9월 8000건, 12월 6000건에 이어 올해 1월에는 5000건에 불과했다.

서울아파트 매매는 지난달 4743건으로 전년 대비 46.7% 급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600가구, 지방 5만2467가구로 각각 10.9%, 0.8% 감소했다. 전체 미분양은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방의 비중이 81%에 달했다.

올해 들어 분양이 급감한데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 대비 27.6%, 전년 동기 대비 79.4% 감소했다. 특히 2월 수도권 분양은 전무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2503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고,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월 대비 53.7% 줄었다.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새 50억 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급등에 환전 증가  
기업 예금 중심 달러화 예금 ↓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예금이 한 달새 5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치솟자, 기업들이 수익 결재 대금을 인출하고, 개인은 보유한 달러화를 내다판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억1000만 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통화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84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7억9000만 달러가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려는 이들이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452.7원에서 2월 말 1463.4원으로 10.7원 뛰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화예금이 줄었다. /뉴시스

엔화예금도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들이 늘었다. 2월 기준 엔화잔액은 77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엔(100엔) 환율은 1월 말 939.0엔에서 2월 말 975.4엔으로 36.4엔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38억7000만 달러 줄어든 84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0억4000만 달러 감소한 13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846억2000만 달러)은 45억8000만 달러, 개인예금(139억1000만 달러)이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내외리 기자 yul115@

### 빗썸

## 법인회원 가입 개시

빗썸은 지난 28일부터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 빗썸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법인을 직접 찾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인 회원 가입 서비스는 단순한 가입 절차를 넘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신청 시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 안내 등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건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자 효율성,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빗썸은 단기 거래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 운용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WOORI 가족봉사단’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 ‘2025 가족봉사단’ 발대식

직원·직원가족 자발적인 참여  
‘희망 & 마음상자’ 만들기 진행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 등 100여 명이 함께한 2025년 ‘WOORI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WOORI 가족봉사단’은 우리은행과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직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올해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 ‘희망상자 & 마음상자 만들기’를 진행했다.

‘희망상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더 나은 입원 생활을 위한 담요, 텀블러, 비니 등 물품들로 구성됐다. 이날 제작한 희망상자는 우리은행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공동 후원하는 ‘소아암어린이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에게 지원된다.

‘마음상자’는 감사일기장, 피크닉 매트 등 위기가정의 관계개선을 위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연임 성공’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총회서  
찬성 76표, 반대 3표로 선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앞으로 3년간 저축은행중앙회를 이끌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회관 16층 벅커스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각 회원사 대표 79명이 모두 참석했다. 오 회장은 찬성 76표, 반대 3표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했다.

업계에서는 중앙회장의 금융 경험과



업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책임자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같은날 중앙회 전무이사과 감사에는 각각 김인구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권에 현안이 많아 어깨가 무겁지만 소통을 강화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노력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